

날짜 2023-03-05(D1)      본문    눅2:1-7  
번호 2425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설교    변일국 목사  
구분    주일예배, 성찬      찬송    찬42, '거룩한 주님께'

## ‘예수 그리스도의 탄생’

시작    주기도  
찬송    찬42, '거룩한 주님께'  
기도    권영희 사모  
설교    ‘예수 그리스도의 탄생’(눅2:1-7)  
성찬    마26:26-28, 찬230, ‘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니’  
찬송    찬108, ‘그 어린 주 예수’  
봉헌    변준석 형제  
광고

- ① ‘아케이나 코엘레스티아’ 번역 작년 여름 이후 중단되었던, 스페텐보리 저, ‘아케이나 코엘레스티아’(Arcana Coelestia, 창세기, 출애굽기 속뜻 주석) 번역을 3월부터 재개(5차)하였습니다.

## 헌금기도

<sup>10</sup>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 
<sup>11</sup>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(사58:10-11)

오, 주님, 주님을 찬양합니다. 이 말씀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 저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다시 주께 드리오니 이것이 주린 자와 괴로운 자를 돕는 일, 곧 주님의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..

## 축도

이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도우심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,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

오, 기록하신 사랑의 주님, 오늘은 2023년 3월 5일, 3월 첫 주일, 누가 복음 2장 1절로 7절, '예수 그리스도의 탄생'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.

오늘 말씀은 보통은 12월 성탄절 즈음에 다루는 본문을 쫓피는 3월에 접하게 새로웠습니다. 오늘 본문은 드디어 온 인류의 염원이던 '예수 그리스도의 탄생' 본문으로, 전반적 그 시대적 상황을 다루었지만, 그러나 그 속뜻으로는 주님이 한 개인에게 오실 때, 그 개인의 내면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정황과 그 과정이라는 무척 새롭고 또 귀한 말씀이었습니다. 오늘 본문에서 '호적', 즉 '인구조사'의 속뜻은 각 사람의 내면에 있는 선과 진리들을 살피고 판단하는 의미라는 것과, '수리아'는, 사람은 주님의 선과 진리를 다이렉트로 이해 내지는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, 반드시 그 중간에 완충 역할, 다리 역할을 하는 '합리'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'수리아'의 속뜻이라는 것, 주님의 선과 진리, 곧 말씀이 우리 안의 합리를 통해 이해가 되었을 때라야 비로소 주님이 내적 진리로 우리를 살피실 수 있다는, 정말 귀한 말씀이었습니다. 그밖에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여정과 마리아의 잉태, 그리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눕었다는 말씀의 속뜻 등 계속되는 아름다운 말씀에 감동, 또 감동이었습니다. 오, 주님, 이 어두운 자의 눈을 열어 이런 귀한 아케이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오, 주님, 오셔서 제 안의 아름다운 교회의 주인, 주님이 되어 주세요...

간절히 기도하는, 이 자리 모인,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, 생활과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,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. 아멘!